

#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

##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and stress, and knowledge on child rearing on his parenting self-efficacy

김선애 · 한유진\*

나사렛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Kim, Sun-Ae · Han, You-Jin

Dept. of child studies, Nazarene Univ.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Education, Myoungji Univ.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ve effect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knowledge on bringing up children on his parenting self-efficacy. Two hundred and seventy fathers with children under the age of sev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Fathers showed a lower level of parenting stress and a higher level of knowledge on child rearing. A higher level of parenting self-efficacy was observed in fathers who have good jobs. The factor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and knowledge on rearing children were significant variables in predicting his parenting self-efficacy. A factor of knowledge on child rearing was the best predictor of father's parenting self-efficacy.

Key Words : parenting behavior, parenting stress, knowledge on child rearing, parenting self-efficacy

### I. 서론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만족과 함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고,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특히, 남성에게 있어 아버지 역할은 직장에서 누리기 힘든 친밀한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며, 정서적·표현적 측면의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Grossman, 1987).

그러나 1970년대 이전에는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전가하였고 가정의 부양자로서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가 요구되었으며 자녀양육 관련 연구 역시 어머니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전통적 남성 역할이 재조명되기 시작하였

고(Grossman, 1987; Palkovitz, 1984; Parke, 1981; Radine, 1976),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여성의 취업률 증가와 핵가족화 현상으로 가정 내 자녀양육에 있어 잊혀진 공헌자로서의 아버지(Lamb, 1975)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Blanchard & Biller, 1981; Grossman, 1987; Palkovitz, 1984). 국내에서도 1980년대 이후 아버지 역할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아버지 관련 연구들은 양육 행동(우정희, 2002; 이정순, 2003), 양육참여(이완정, 현은강, 최혜란, 1997; 이정순, 2003; 허선자, 1992), 역할수행(김진희, 2005; 민현숙, 1997; 조선화, 김광웅, 1999),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김광웅, 이인수, 1998; 김진, 이신숙, 신효식, 1995;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 2001; 정연희, 최경순, 1995)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여성 취업률과 맞벌이 가족형태가 증가하나

\* Corresponding author: Han You-jin  
Tel: 02) 300-0604, Fax: 02) 300-0600  
E-mail: yjhan@mju.ac.kr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인적 자원의 부족, 사회적 인식에 대한 변화 요구 등으로 아버지 양육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증가하고 있다. 관련 연구들도 아버지는 어머니 보다 양적으로는 적게 유아 양육에 참여하지만,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머니와 질적으로 다르며 (Geiger, 1996; Pruett, 2000),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기 다른 자극을 함께 받을 때 유아의 발달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박광균, 2000; Lamb, Pleck & Levine, 1985)에서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가 어머니 못지않게 중요함을 입증하고 있다.

아버지 역할 연구의 최근 또 다른 연구경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남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면서(문혁준, 2005; 이정순, 2003) 양육행동과 관련된 아버지의 심리적 변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부모의 심리적 변인인 부모효능감(문혁준, 1999; 이영환, 오미영, 2006; 최형성, 2005; Bogenschneider et al., 1997; Coleman & Karraker, 1997; Desjardin, 2003; Gondoli & Silverberg, 1997; Leerkes & Crokenberg, 2002; Teti & Gelfand, 1991; Wells-Parker, Miller, & Topping, 1990)은 부모역할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자녀를 잘 양육하고 훈육하며 자녀와 문제가 생겨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을 의미(Jahson & Mash, 1989)한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있다고 지각할수록 아동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동을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취급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이 있고 일관되게 행동한다(Mondell & Tyler, 1981). 또한 부모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과 부모와 자녀간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Dorsey et al., 1999). 반면, 부모효능감이 낮은 부모는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동의 긍정적 발달을 방해한다(Coleman & Karraker, 1998). 부모효능감에 대한 활발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김현미, 도현심, 2004; 문태형, 2002; 송미혜, 송연숙, 김영주, 2007; 송연숙, 김영주, 2007; 신숙재, 1997; 최형성, 2005)은 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행되어왔으며, 직접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부모효능감에 대해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최근 아버지의 적극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가족중심의 가치관 변화,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증대를 고려할 때 심리적 변인으로서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성의 아버지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 양육참여가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발달에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시작되었고, 초기에는 주로 아버지가 어떤 양육행동을 얼마나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이후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부모역할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며(양미정, 1996),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하는 아버지들은 자녀와의 관계가 향상될 뿐 아니라, 스스로를 유능한 부모라고 인식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도가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Baruch & Barnett, 1986)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아버지의 양육수행과 부모효능감과의 관련성을 예측할 수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수행에 대한 범위가 넓어 직접적인 역할 뿐 아니라 어머니를 지지하는 간접적인 역할까지 양육수행에 포함되어 있어 일관된 연구결과를 얻기 어려우므로(한유진, 김선애, 2007), 이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수행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버지의 자녀양육행동으로 정의하고 부모효능감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부담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양육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Crinic & Booth, 1991).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상적으로 지각하는 스트레스를 Abidin(1990)은 양육스트레스라 개념화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의 선행연구들에서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에 부적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숙재, 1997; 안지영, 2001; Abidin, 1990; Dumkaet et al., 1996; Kotchick et al., 1997; Levy-Shiffet et al., 1998; Scheel & Rieckmann, 1998).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많으며 아버지의 영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 자녀의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는 가사일 부담 뿐 아니라 육아의 부담이 훨씬 증대되었고 또한 가정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위영희, 1983). 이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여겨지나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어머니가 받는 스트레스의 정도와 차이가 없다는 연구(선미정, 1995)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뿐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에도 연구자의 관심이 요구

됨을 시사하며,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 중 부모영역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게 난 연구 결과(이슬기, 전귀연, 김수경, 2007)를 볼 때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가 구체적으로 부모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부모의 양육지식은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말한다(Larsen & Juhasz 1985). 어머니의 자녀의 발달수준에 대한 지식은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고 자녀와 상호작용 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Miller, 1988),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성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Larsen & Juhasz, 1986), 자녀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지각은 자녀의 발달을 보다 더 잘 도모할 수 있게 한다(Hunt & Paraskevopoulos, 1980).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지식을 비교해 본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양육지식이 높았고(박은주, 2002; 이영환, 오미연, 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지식이 높았다(선미정, 1995; 윤형주, 2002; 이영환, 오미연, 2006). 이영환과 오미연(2006)은 영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유능감과 영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양육지식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자녀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버지들이 직접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이해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들의 양육지식을 발달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구체적인 정보로 나누어 보다 상세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육지식과 부모효능감간의 관련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 등 양육과 관련된 변인이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의 부모효능감과 관련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고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문제 1)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및 부모효능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부모효능감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식은 부모효능감과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4)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며, 맞벌이를 하는 취학 전 자녀(7세 이하)를 두고 있는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을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총 270명을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연령은 평균 35.6세로 35~39세가 전체 표본의 45.9%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학력은 대학교 중퇴 혹은 졸업인 경우가 63.3%이며, 직업은 사무직과 관리직 종사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8.2%, 27.8%). 직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한달 총소득은 300~500만원 미만 비율이 가장 높으며(47%), 자녀수는 평균 1.49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명(퍼센트)
연령	29세 이하	15 (5.6)
	30-34세	85(31.5)
	35-39세	124(45.9)
	40세 이상	46(17.0)
학력	고등학교중퇴·졸업	36(13.5)
	대학교중퇴·졸업	169(63.3)
	대학원이상	62(23.2)
직업	단순노동	1 (.4)
	반숙련직	1 (.4)
	숙련직	10 (3.9)
	판매직	27(10.4)
	사무직	99(38.2)
	관리직	72(27.8)
	전문직	49(18.9)
총소득	100~149만원	8 (3.0)
	150~199만원	22 (8.3)
	200~299만원	62(23.3)
	300~499만원	125(47.0)
	500만원 이상	49(18.4)
자녀수	한 명	143(53.6)
	두 명	116(43.4)
	세 명	8 (3.0)

## 2. 측정도구

### 1) 양육수행

아버지의 양육수행 척도는 양미경(1998)의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 척도와 백지은(1998)의 아버지의 양육행동 척도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수정·제작 하였다. 양육수행은 아버지의 실제적인 양육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나는 아내만큼 아이를 잘 챙겨 먹인다, 나는 아내만큼 아이 옷 입히기를 잘 한다' 등의 8항목으로 질문하여 측정하였다. 각각의 항목은 '그렇지 않다'에서 '그렇다'까지 1에서 4점을 부여하는 리커트 척도를 통해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수행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평정하였다.

### 2) 양육지식

양육지식은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지식으로 세분하여 측정하였다. 전반적이해는 자녀의 선호도와 감정상태, 특성 등에 대한 아버지의 지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 '나는 아이의 장점을 알고 있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다' 등 전반적인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체적인 지식은 자녀의 생일, 혈액형, 키와 몸무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으로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의 요인분석을 통해 문항을 수정·보완 하여 전반적인 이해 15문항, 구체적 지식 5문항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양육지식 척도는 4점 리커트 척도로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전반적이해와 구체적인 지식이 많은 것을 나타낸다.

### 3)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는 손지미(1998)와 김리진과 윤종희(2000)의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참고로 하여 자녀 양육문제로 부부간의 불화를 경험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총 2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4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4) 부모효능감

부모효능감은 주어진 부모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활동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능력 판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혜영과 이숙현(1999)의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로서의 유능감 척도와 최형성(2001)이 사용한 양육효능감 척도, 김경륜(1998)이 사용한 부모역할 만족 척도 등을 참조하여 제작한 뒤 예비조사를 통해 '나는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다룬다', '나는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잘 하고 있다' 등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효능감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에 이르기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질문항목에 대해 긍정을 표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다음과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  
( ) 안은 문항수

	양육지식		양육 스트레스	부모 효능감	
	양육 수행	전반적 이해			구체적 지식
내적 합치도	.90(8)	.94(15)	.83(5)	.82(2)	.94(14)

## 3.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는 아버지와 개별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아동학을 전공하는 조사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원은 먼저 연구자에 의해 서베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취학 전 자녀를 두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조사원의 자료수집 과정이 진행되었다.

총 270부의 자료가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모든 자료는 SPSS WINDOW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위해 상관관계 분석, 단계별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및 부모효능감

아버지가 지각하는 실제적인 양육수행 점수는 2.68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를 나타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부간 불화와 스트레스는 6점 리커트 점수로 평정한 결과 2.93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가까운 점수를 보고하고 있어 양육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자녀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전반적자녀이해는 2.98의 '그런 편이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여,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몸무게, 생일, 혈액형 등을 알고 있는 지에 대한 자녀지식은 2.93으로 '그런 편이다'에 해당한다.

본인이 수행하는 부모역할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스스로의 능력을 평가하는 부모효능감은 평균 3.60으로 높은 점수를 보고하고 있다. 부모효능감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고 3.60은 '반반이다'와 '대체로 그렇다' 사이의 점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의 경우 부모효능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

개인의 연령이나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에 따라 부모효능감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부모효능감은 직업을 제외한 사회인구학적변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지 않다. 7세 아이를 둔 맞벌이 남성의 경우 연령의 많고 적음이나 교육수준,

가구의 한 달 평균 수입은 부모로서의 효능감을 갖는 것과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오로지 직업과 부모효능감과의  $p<.05$  수준에서의 정적 관계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직업위치가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높아질수록 부모효능감도 증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많고 적음도 부모효능감에는 유의미하게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아버지가 지각하는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 본인의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전반적자녀이해, 구체적자녀지식) 정도가 부모효능감과 관련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녀를 챙겨 먹고 책을 읽어주며 목욕을 시켜주는 양육을 수행할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r=.573, p<.001$ ).

양육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부적 관계( $r=-.304, p<.001$ )를 보이고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부부간의 불화를 겪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부모효능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화를 내는지에 대

<표 3>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및 부모효능감 경향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양육수행	266	1.00	4.00	2.6865	.65422	
양육스트레스	267	1.00	5.00	2.9382	.99761	
양육지식	전반적이해	267	1.53	4.00	2.9892	.48108
	구체적지식	266	1.20	4.00	2.9391	.58591
부모효능감	266	1.93	5.00	3.6058	.60280	

<표 4>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효능감과의 관계

변인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
부모효능감	-.039 <sup>n.s</sup>	.128 <sup>*</sup>	.047 <sup>n.s</sup>	.063 <sup>n.s</sup>	-.028 <sup>n.s</sup>

\*  $p<.05$ , \*\*  $p<.01$ , \*\*\*  $p<.001$ , n.s not significant

<표 5> 양육기대,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와 부모효능감과의 관계

변인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전반적이해	구체적지식
부모효능감	.573 <sup>***</sup>	-.304 <sup>***</sup>	.592 <sup>***</sup>	.384 <sup>***</sup>

\*  $p<.05$ , \*\*  $p<.01$ , \*\*\*  $p<.001$

한 인지인 양육지식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느끼는 부모효능감도 높았다( $r=.592, p<.001$ ). 더불어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을 알고 있는 아버지 일수록 높은 부모효능감을 보였다( $r=.384, p<.001$ ).

따라서 남성이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양육을 수행하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녀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4.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부모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 변인과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전반적자녀이해, 구체적자녀지식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첫 번째 모형에 투입된 변인은 전반적자녀이해로 35%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다음 모형 2에는 양육수행 변인이 진입되었으며 설명력은 42%로 증가하였다. 최종 모형에 양육스트레스 변인이 새롭게 진입하여 전반적자녀이해,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가 갖는 설명력은 46%이다. 구체적자녀지식은 부모효능감과 정적인 일차 관계를 보였으나( $r=.592, p<.001$ ), 변인 간 상호통제 후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소멸되어 모형 진입에서 제거되었다. 또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도 모형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이 중 직업은 부모효능감과 일차적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미약하지만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나( $r=.128, p<.05$ ), 단계별 회귀분석에서는 그 영향력이 소멸되었다.

최종 진입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부모

효능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반적자녀이해( $Beta=.354, p<.001$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자녀의 장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부모로서 효능감이 증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변인은 양육수행( $Beta=.332, p<.001$ )으로 남편이 아내만큼 자녀를 잘 챙기고 돌보는 양육을 직접적으로 수행할 때 부모효능감이 더불어 증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때 부모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02, p<.001$ ).

구체적자녀지식 변인이 부모효능감을 최종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 결과는 결국 부모로서의 효능감은 태어난 날이나 혈액형, 몸무게 등과 같은 실제적 데이터에 대한 지식보다는, 현재 자녀의 관심사, 흥미, 감정상태에 대한 부모의 민감성, 자녀와의 상호작용 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부모효능감에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즉 연령이나 학력, 직업, 수입, 자녀수와 같은 배경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간의 양육을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이해가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의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관련변인을 규명하고자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은 비교적 양육스트레스는 낮게 경험하고 있었고, 자녀에 대한 이해는

<표 6> 부모효능감 관련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모형 1	모형 2	모형 3
	Beta	Beta	Beta
전반적자녀이해	.592***	.383***	.354***
양육수행		.347***	.332***
양육스트레스			-.202***
R <sup>2</sup>	.350	.427	.466
F	131.378***	90.625***	70.473***

\* p<.05, \*\* p<.01, \*\*\* p<.001

모형 1에 제외된 변수 :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 부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구체적자녀지식

모형 2에 제외된 변수 :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 양육스트레스, 구체적자녀지식

모형 3에 제외된 변수 : 연령, 직업, 학력, 수입, 자녀수, 구체적자녀지식

높은 편으로 나타나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관심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상대적으로 어머니에 비해 낮은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아버지가 보다 양육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Morman & Floyd, 2002). 부모효능감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보여,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부모로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인 부모효능감이 더 이상 어머니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질적인 양육수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자녀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더불어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증대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양육수행은 인식의 변화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 대상자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남성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곧 양육수행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에는 양육수행의 능숙성과 수월성 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부양자로서의 가장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만족감이 부모효능감 및 부모만족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틀에 의해 맞벌이 남성이 양육수행이 낮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도 덜 받으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부모효능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개인의 연령, 학력, 수입, 자녀수와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오로지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혜영과 이숙현(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고, 수입이 많으며,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아버지 역할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김정옥, 2003; 민현숙, 2009; 윤서영, 1999; Lynn, 1974)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것으로, 개인의 연령이나 학력, 수입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직접적인 관련을 보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에 가까울수록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아버지의 부모효능감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수입에 의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김혜연, 신유림, 2005). 그러므로 부모효능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이외에 이를 중재하는 변인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양육관련 변인인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자녀이해는 부모효능감과 정적인 상관관계

를 나타내, 남성이 자녀 양육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양육을 수행하며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자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지식이 많을 때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양육수행과 부모효능감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가 증가할수록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향상된다는 선행연구 결과(Russell, 1986)를 뒷받침한다.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이영환, 오미연, 2006) 거부적 양육행동이나 방임과 같은 양육행동과 관련되며(Suchman & Luthar, 2001), 부모효능감과 부적 관계가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안지영, 2001; Abidin, 1990; Dumka et al., 1996; Kotchick et al., 1997; Levy-Shiff et al., 1998).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양육스트레스와 부모효능감은 부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의 부모유능감과 영아의 정서발달에 관한 양육지식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최형성, 2005)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부모효능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효능감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행동으로 옮겨진 실제적인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순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구체적 지식은 부모효능감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 남성이 갖는 부모효능감은 연령, 학력, 직업, 수입, 자녀수와 같은 개인의 배경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육을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와 자녀간의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자녀에 대한 이해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간 국내에서 보고된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의 실태를 밝히려는데 주력해 왔다(황순영, 정영숙, 우수경, 2005).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로서의 만족감이나 효능감과의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이 변인의 영향력을 중재하는 변인의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결과는 아버지의 부모효능감과 만족감을 증가시켜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위한 실제적인 지침의 제공과 자녀 이해를 위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교육과 지지가 주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이런 중재변인의 규명을 통해 아버지 양육수행의 긍정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으며 부모효능감을 높

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이해 수준 향상을 위한 시의성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7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다. 연구대상의 범주를 제한 한 것은 7세 이하가 민감한 자녀양육기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이 가족단계의 아버지의 양육수행의 실태와 부모로서의 만족감, 효능감과 관련된 변인의 일차적 규명에 목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본 논문의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바, 이후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연령층을 자녀교육기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부모기는 비단 자녀양육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생애적인 과업이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층의 확대는 기존 연구에서의 불일치한 연구결과들을 명확히 규정해 낼 수 있는 이점 또한 갖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층의 다양화와 수입, 직업지위의 다양화는 보다 실제 현상과 가까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로, 연구대상을 맞벌이 남성만이 아닌, 전체 남성으로 확대한 후속 연구가 실행되기를 바란다. 맞벌이 남성과 그렇지 않은 환경하의 남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양육스트레스, 양육수행, 부모효능감 등을 비교하고, 남성의 역할이 여성의 부모 역할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과정은 긍정적 자녀발달을 이끌고 부모로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양육수행, 양육스트레스, 양육지식, 부모효능감

## 참 고 문 헌

- 김경륜(1998). 직장보육 서비스가 취업부모의 다중역할 수행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6.
- 김리진 · 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12), 47-58.
- 김정옥, 정영숙(2003). 아버지의 역할 만족도와 양육행동. *생활과학연구논총*, 7(1), 141-161.
- 김진, 이신숙, 신효식(1995).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성취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과학교육학회지*, 7(1), 47-55.
- 김진희(2005).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과 유능감에 관한 연구-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남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1), 113-123.
- 김현미 · 도현심(200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6), 279-298.
- 김혜연(1992).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가 학동기 딸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혜연 · 신유림(2005).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만족도와 관련된 변인 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93-102.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1999). 취업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효능감이 자녀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6), 97-107.
- 문혁준(2005). 취학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민현숙(1997). 아동기 아버지의 생활만족 수준과 역할수행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광균(2000). 아버지의 자녀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주(2002). 부모효능감과 아동의 역량지각 및 외로움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 서혜영 · 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 역할 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 선미정(1995). 취학전 자녀양육에 대한 아버지의 스트레스 연구. *기전여자전문대학 논문집*, 15, 33-41.
- 손지미(1998). 직장보육의 부모양육보충 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송미혜 · 송연숙 · 김영주(2007). 유아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5), 165-183.
- 송연숙 · 김영주(2007). 양육신념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양육효능감 연구. *아동교육학회지*, 16(4), 107-117.
- 신숙재(1997).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안병철(1990). 한국남성의 가족역할: 관련 요인 및 참여정도를 중심으로. *한양대 사회과학논총*, 9, 231-253.
- 안선정(200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놀이성과 아버지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3(2), 75-85.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



-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전 아동의 성역할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미경(1996).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4), 87-101.
- 양장애(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버지의 역할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지향. *아동학회지*, 20(1), 135-145.
- 우정희(2002).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위영희(1983). 아버지-아동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아버지의 역할 및 아버지-아동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4, 23-35.
- 윤형주 · 조복희(2002).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지지가 가정의 양육환경 및 그 관계성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2), 59-88.
- 은주영, 류도희, 이귀옥(2001). 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경성대학교 논문집*, 22(1), 323-334.
- 이슬기 · 전귀연 · 김수경(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가 양육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5(1), 35-49.
- 이완정, 현은강, 최혜란(1997).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자녀의 보육상황에 대한 보육인 지도가 아버지의 보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4), 63-77.
- 이영환 · 오미연(2006).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모효능감, 양육 지식 및 민감성의 비교 연구-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9(3), 47-62.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3(3), 5-19.
- 정연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정옥분, 윤서영(1999). 아버지의 역할수행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아동학회지*, 20(2), 101-123.
- 조선화 · 김광웅(1999). 자녀의 연령과 성에 따른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 역할 수행. *한국가족복지학*, 4(1), 19-38.
- 최경순(1991). 아동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행동. *부산여대 논문집*, 31, 247-269.
- 최경순(1993).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4(2), 115-135.
- 최형성(2005). 남녀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 및 아동의 기질. *아동학회지*, 26(1), 317-328.
- 최형성(2005). 양육효능감의 매개 역할: 양육행동의 인과관계 모형. *아동학회지*, 26(6), 351-365.
- 한유진, 김선애(2007).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공평성 가치관 및 아버지의 양육수행유능감과 양육수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37-46.
- 허선자(1993).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교육학연구*, 31(5), 131-152.
-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순영 · 정영숙 · 우수경(200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역할만족도 및 유아의 사회적 능력. *한국생활과학회지*, 14(4), 521-529.
- Abidin, R. R. (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Manual Pediatric Psychology Press.
- Baruch, G., & Barnett, R. C.(1986). Consequences of fathers' participation in family work: Parents' role strain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983-992.
- Blanchard, R. W., & Biller, H. B.(1981). Father availabi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among third grade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4 301-305.
- Bogenschneider, K., Small, A., & Tsay, J.(1997). Child, parent,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among parents of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9, 345-362.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7).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56, 754-761.
- Coleman, P. K., & Karraker, K. H.(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and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Cri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els of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Family*, 51, 1042-1050.
- Desjardin, J. L.(2003). Assessing parental perceptions of self-efficacy and involvement in families of young children with hearing loss. *Volta Review*, 103(4), 391-409.
- Dorsey, S., Klein, K.,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Dumka, L. E., Stoerzinger, H. D., Jackson, K. M., & Roosa, M. W. (1996). Examination of the cross-cultural and cross-language equivalence of the parenting

- self-efficacy measure. *Family Relations*, 45, 216-222.
- Geiger, B. (1996). *Fathers as primary caregivers*. Westport, CT: Greenwood.
- Gondoli, D. M., & Silverberg, S. B.(1997). Maternal emotional distress and diminished responsiveness: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and parental perspective tak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3(5), 861-868.
- Grossman, F. K. (1987). Separate and together: Men's autonomy and affiliation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In P. W. Berman & F. A. Pedersen (Eds.), *Men's transitions to parenthood* (pp. 89-112). Hillsdale,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unt, J. M., & Praskevopoulos, J. (1980). Children's psychology development as a function of their abilitie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1), 285-298.
- Johnston, C., & Mash, E. J.(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8: 167-175.
- Kotchick, B. A., Forehand, R., Brody, G., Armistead, L., Simon, P., & Clark, L.(1997). The impact of maternal HIV infection on parenting in inner-city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1(4), 447-461.
- Lamb, M. E.(1975). Fathers' forgotten contribution to child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18, 245-266.
- Lamb, M. E., Pleck, J.H., & Levine, J. A.(1985). The role of the father in child development: The effect of the increased paternal involvement. In B. S.
- Larsen, J. J., & McCreary-Juhasz, A.(1986). The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inventory. *Adolescence*. 20(80), 823-839.
- Larsen, J. J., & McCreary-Juhasz, A.(1985). The effect of knowledge of child development and social-emotional maturity on adolescent attitudes toward parenting. *Adolescence*, 20(80): 823-839.
- Leerkes, E. M., & Crockenberg, S. C.(2002). The development of maternal self-efficacy and its impact on maternal behavior. *Infancy*, 3(2), 227-247.
- Levy-shiff, R., Dimitrovsky, L., Shulman, S., & Har-Even, D. (1998). Cognitive appraisals, coping strategies and support resources as correlates of parenting and infa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4(6), 1417-1427.
- Miller, S.(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58.
- Mondell, S., & Tyler, F. B. (1981). Parental competence and styles of problem-solving/play behavior with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17: 73-78.
- Morman, M. T., Floyd, K.(2002). A 'changing Culture of Fatherhood': Effects on Affectionate Communication, Closeness, and Satisfaction in Men's Relationships with their Fathers and their Sons. *Western Journal of Communication*, 66(4), 395-412.
- Palkovitz, R.(1984). Parental attitudes and fathers interactions with their 5-month-old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0(6), 1054-1060.
- Parke, R. D.(1981). *Father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Pruett, K. D.(2000). *Fatherhoo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ew York: Free.
- Radine, N.(1976). Father-child interaction and the intellectual functioning of four-year-old boys. *Developmental Psychology*, 6, 353-361.
- Russell, G.(1986). Primary caretaking and role-sharing fathers. In M. E. Lamb (Ed.),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pp. 9-57)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Scheel, M. J., & Rieckmann T. (1998). An Empirically derived description of self-efficacy and empowerment for parents of children identified as psychologically disordered.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 15-27.
- Suchman, Nancy E. Luthar, Suniya S.(2001).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Stress in Methadone-Maintained Mothers' Parenting. *Science & Practice*, 1(4), 285-316.
- Teti, O. M., & Gelfand, D. M.(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Wells-Parker, E., Miller, D. I., & Topping J. S.(1990). Development of control-of-outcome scales and self-efficacy scales for woman in four life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4(3&4), 564-575.

(2008. 8. 10 접수; 2009. 1. 31 채택)